범어사 성보 보존할 '천년 寶庫' 문 열다

범어사, 11월 16일 신축 성보박물관 개관 기념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성보박물관이 신축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1월 16일 개산 1343주년 개산대제 법요식에 이어 범어사성보박물관 신축 이전 개관식을 개최하고 성보박물관을 새롭게 열었다.

신축 범어사성보박물관은 연면적 2959㎡ 규모이며 지상 2층, 지하 1층 총 3개 전시관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범어사 측은 "국내 성보박물관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박물관 입구인 중정부 공간에는 11m 높이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대형불화인 범어사 괘불도를 걸었으며, 국보인 〈삼국유사 권 4~5〉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1층 상설전시관에서는 '범어사 사천왕도', '대웅전 영산회상도', '범어사 비로자나불회도' 등 그동안 선보이지 못한 중요문화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비했으며, 2층 기획전시관에는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범어사 황실 축원 장엄수' 등 공예품을 볼 수 있는 '범어사의 공예-공덕과 장엄을 만나다 展'을 개최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기증전시관, 기획전시관, 상설전시관 뿐 아니라 금정산 녹지로 쌓여진 자연친화적 공간을 자랑한다. 야외테라스 공간도 마련해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무료 개방한다.

개관식은 △고불문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법문 △사홍서원 △제막 △박물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으며 금정총림 방장 지유 대종사를 비롯해 주지 경선 스님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정미영 금정구청장, 백종헌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범어사는 신축 성보박물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황동열 홍기종합건설 대표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새롭게 임명된 관장 환응 스님을 소개하며 신축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을 통해 성보의 가치를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연면적 2959㎡ "국내 최대 규모"
중정 공간에 11m 대형괘불 전시
국보 삼국유사 권 4~5 최초 공개

방장 지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성보의 가치를 통해 참된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다"며 "성보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보물이다. 그 뛰어난 가치를 잘 보존 보관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격려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개관 이래 여러 전시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소장유물이 늘어나고, 공간이 협소해짐에 따라 여러 한계점에 이르렀다. 특히 초대 박물관장으로서 박물관의 한계를 여실히 느껴왔기에 신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새롭게 성보박물관을 지으며 전시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성보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제 천년을 이어갈 새로운 보고를 마련했다. 불사를 위해 함께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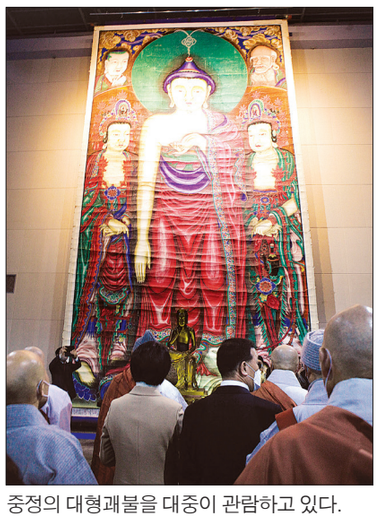
신임 관장 환응 스님은 "오랫동안 박물관을 운영하며 성보에 대한 가치와 불교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주지 스님의 뜻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겠다"며 "앞으로도 그 뜻을 잊지 않고 받들어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을 전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2003년 3월 26일 경선 스님을 초대 관장으로 개관했다. 개관 이후 소장 중인 문화재의 수가 늘어나고 전시공간이 부족해 신축 성보박물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수장고가 협소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2016년 8월에 사업계획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했으며 2017년 4월은 문화재청에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2018년 국비사업을 신청했다.

2017년 5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시행했으며 예산 125억4천40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5월에 부산시와 금정구를 통해 2018년도 투자사업비 55억 4400만 원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 19일에는 범어사 성보박물관 건립 착공식을 봉행했으며 2021년 6월 30일 범어사 성보박물관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11월 16일 성보박물관 신축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신축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연면적은 2959㎡ 규모이며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조성됐다.


중정의 대형괘불을 대중이 관람하고 있다.


최초로 공개된 국보 〈삼국유사〉권4~5를 방장 지유 스님과 내빈들이 보고 있다.

통도사 개방형 수장고 건립 '본격화'

11월 15일, 건립불사 기공식
성보 보존 · 전시 동시 가능
2023년 건립불사 완료예정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에 불교박물관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가 마련된다. 통도사는 11월 15일 서운암에서 '개방형 수장고 건립기공식'을 봉행하고 불사를 시작했다.

통도사 개방형 수장고는 개방형 수장고로 유물 보존과 전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별함을 자랑한다.

기공식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축사 △시삽 △축가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으며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해 산내 원로 스님 및 김일권 양산시장, 박종훈 양산시 교육감, 윤열수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통도사는 국보와 보물, 유형문화재를 포함해 4만 5천여 점에 이르는 유물을 간직한 명실상부 역사문화의 보고"라며 "통도사에 건립 될 개방형 수장고는 문화재에 대한 기존의 보관, 보존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재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전시 · 공유로의 전환이다"고 뜻을 전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11월 15일 통도사 서운암 수장고 공사현장에서 '개방형 수장고 건립기공식'을 봉행했다.


2023년 완공될 통도사 개방형 수장고의 조감도.

통도사는 1998년 개관한 성보박물관의 노후화와 공간부족으로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수장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후 통도사는 부지 3,749㎡, 약 1,134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1층으로 개방형 수장고 사업을 진행했다. 수장고 지하 1층에는 개방형 체험 다목적실과 학예실, 유물 정리실, 전기실 등이 위치하며 지상 1층은 로비와 관람객의 쉼터인 편의시설, 문화재 이동 관리 공간들이 자리한다.

특히 수장고는 대형괘불을 보여줄 수 있는 불화 전문 박물관으로 높이를 조정했으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설치된다. 개방형 수장고 건립 사업은 2020년 1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비 4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고,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이 체결됐다. 2021년 8월에 문화재청 설계승인과 함께 총사업비 105억원이 확정됐으며 2년 후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담스님 정화정신, 정진으로 완성을"

도선사 11월 15일 열반50주기 추모다례재 봉행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으로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일으키고 불교 중흥의 기틀을 닦은 청담 대종사를 선양하는 자리가 열반 50주기를 맞아 도선사에서 열렸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는 11월 15일 호국참회원에서 청담대종사 열반 5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 원행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청담문도회 상좌 스님들과 손상좌 스님들을 비롯해 원택 스님, 금강회 회장 보인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 중앙종회의원 스님과 호계위원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 김형동 국회의원, 안광석 · 이종환 서울시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다례재에 참석한 대중은 한국불교 정체성을 확립한 청담 스님 영전에 차와 꽃을 올리며 스님이 남긴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날 청담문도회 대표 동광 대종사(도선사 회주)는 "청담 스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 밖에 없다고 항상 말씀하셨다"며 "우리 종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진하면 이 세상을 구제하는 부처님 제자로서 훌륭한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청담 스님 50주년을 맞아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도선사 주지 소임을 시작한지 한달 남짓 되었다. 앞으로 우리 청담문도들은 일심으로 화합하고 도선사를 중심으로 청담 스님의 가르침과 유지를 받들어, 호국참회기도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며 "청담 스님의 대원력과 가르침이 만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청담 대종사께서는 일제불교를 청산하기 위해서 기치를 드셨다"며 "스님께서는 종단 정화에 30년, 스님 정화에 30년, 신도 정화에 30년을 해야 한국불교가 기반위에 오르신다고 했다. 이제 60년이 지났고, 갈 길이 멀다"고 청담 사상의 유지계승을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불교정화의 기수로 지칭되며 최일선에 서계셨지만 정화과정에서는 '인욕보살'이라 칭송을 받으셨다"며 "언제나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며, 참선과 참회를 반복하는 수행을 놓지 않으셨다. 이러한 정신은 정화의 근간이 되고, 국민정화로, 호국사상 실현으로 이어졌다"고 추모했다.

다례재에서는 前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의 추모시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주지 태원 스님의 감사인사를 끝으로 죽비삼배와 함께 마무리 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청담 스님 열반50주기 다례재에서 헌화하고 있다.

"삶의 터전 복귀가 진정한 일상회복"

조계종 사노위 등 3대 종교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 기도회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당한 지 552일째. 차디찬 거리 농성장에서 두 번째 겨울을 견뎌내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거리에 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11월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과 함께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노동위원 시경 스님, 동신 스님, 한수 스님, 대각 스님, 수련 스님,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 장기용 목사,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 해고노동자 등이 동참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매서운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복직농성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사측은 해고 노동자의 마음에 생겨난 상처와 고통의 매듭을 푸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막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몽 스님은 10 · 27법난 승려문예 공모전 수상 상금 전액을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에게 전달하며 조속한 복직을 염원했다.

김계월 지부장은 기도회를 마련해 준 종교지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지부장은 "위드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한다지만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해고노동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회복"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현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